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471호에 이어서)

▲질문자3: 저는 그 동안에 스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실험도 해보고 체험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인공자리를 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 땐가 절에 오니까, 마침 그때 스님께서 매일 일이 끝나면 저녁에 30분씩 주인공공을 관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가끔씩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부처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날 못하면 그 이틀날 출근할 적에 차 속에서라도 꼭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천이 부족해서 아직도 못 깨닫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스님: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구니까? 술을 마신 사람도 선생님이고 또 그렇게 주인공을 관하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관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네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는 증명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너도 없고 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있으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야지, 부(父)와 자(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애비가 증명을 하지 자식은 증명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깐 관할 때 단 10분이라도 좋고, '내가 일할 게 많고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느 시간을 정해놓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망상을 끊지 않고 그대로 참선하라.' 하셨습니다. '망상을 끊지 않고' 하는 것은 망상에 걸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그렇게 열심히들 해보십시오.

▲질문자4: 스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정말 만나기 힘든 선지식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게 해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모르면 제자들이 두 번 세 번 열 번 질문하는 것을 경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법

백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미리미리 그렇게 일러주셨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독을 하지 못해서 참 모두들 아만들입니다마는,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수만 마디를 하고, 수만 마디를 듣고 수만 가지를 보고, 고정됨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그 한마음이 문쳐졌기 때문에 그게 불바뀌입니다. 이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법바뀌예요, 네? 그게 불바뀌

스님도 그러셨답니다. 책을 보다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건질 수 없다 해서 책을 덮어 놓고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마음의 수련을 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쌓아가시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그러면 내가 수련을 쌓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왜 해골바가지 모인 데다가 큰 절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인데 어떻게 하치않은

법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내했지 머무르는 데서 생각을 낸다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바깥세상, 유(有)의 세상의 노예가 되고 반면에 또 바깥의 거를 하나라도 무시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또 무(無)의 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 차근차근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바로 자기 자연의 불성(佛性), 그 자체를 애비라고 친다면 애비가 있다는 것을 애비가 증명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사랑으로 있다 없다를 논의하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게 되겠죠. 자기 애비를 찾

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 싶다 해서 또 걸리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거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고 이렇게 그냥 술을 술술 그냥 넘어가라 이거죠.

기름을 차지 않는다면 기체가 뿔뿔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항상 넉넉히 치면서 항상 손질을 하면서 저절로 굴러가게, 자동적으로 생각만 했다 하면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여여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대로 실상임을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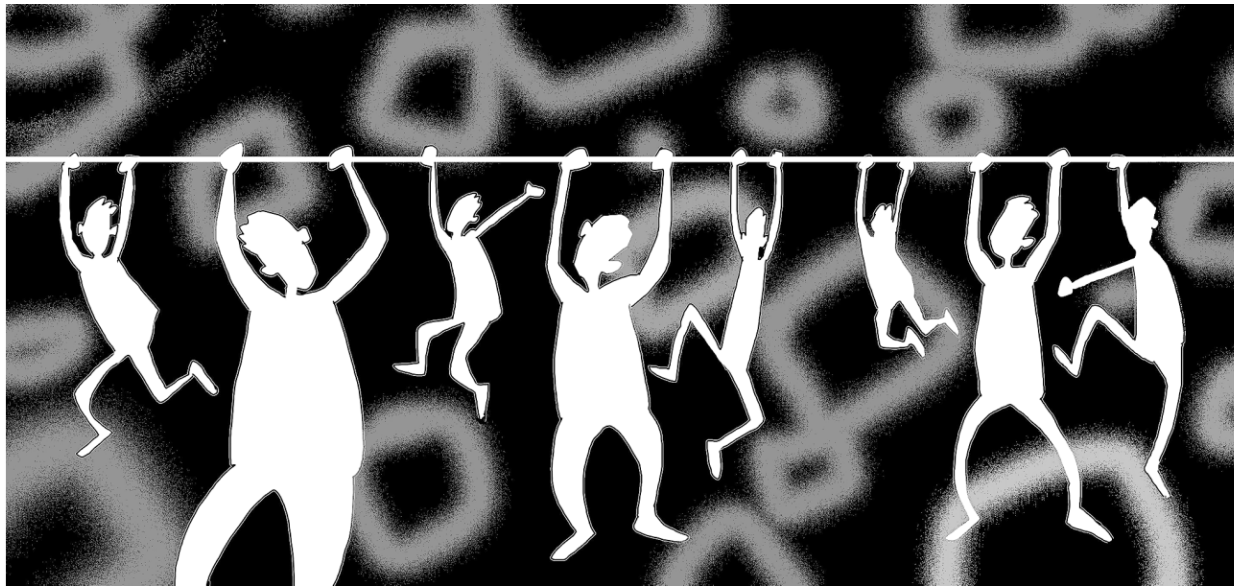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성본래불이니까 보배가 나한테 있으니까

음, 한마음의 도리를 설명해주셨습니까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접히 질문드리오니 관대하신 설법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불교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경을 통하여 또는 참선을 통하여 깨닫는 줄 알고 오늘날도 명산대찰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바로 가슴에 와 닿고 바로 깨치는 공부, 즉 한마음의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깨내는 물론이고 현재 구미지역에까지 일대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구미뿐만 아니라 스님의 높으신 뜻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번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차체에 새로 오신 신도님들도 많고, 아직도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마음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아시니 가슴이 훈자 그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죠. 그걸 전하고선 그 만좌중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그 만좌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꽃을 들고? 우리는 모두가 이어짐이 없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몸뚱이로 지금 사회에 나가 사시지만 회사에도, 회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회장이 없습니다. 전부 상대성으로써 삽니다.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뒷사람 말을 들어야 하고 아랫사람들을 지도해서 한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도 그런가 하면, 열화미소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이런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서는 이미 삼천년 전에, 그 불바뀌가 우주에 돌아간다고, 삼천대천세기에 그 불바뀌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불

는 앞뒤 없는 불바뀌를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만 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바뀌는 생각을 내는 바퀴요, 불바뀌는 생각을 낼 것도 없이 더하고 덜하고 없는 자리인데 법바뀌가 그대로 거기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은 크고 작은 게 있으나 큰 회사에서는 크게 끌어 쓰고 작은 회사에서는 작게 끌어 쓰고 일반 집에서는 또 그대로 끌어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끌어 쓰는 그 자체를 바로 법바뀌라고 하고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 누가 그거를 하고 누가 쓰고 그렇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속에 인과로 인해서 문쳐진 중생들이 많으니 그 의식들이 얼마나 맑겠느냐?' '수미산처럼 맑습니까.' 하니가 '그래, 어떤 일로 수미산같이 그렇게 맑으냐?' 하니가 '수미산처럼 맑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그것은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이 크고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 무지렁이 같아도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보면 벌써 이것이 탁 튀어 올라와서 이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책장 한 장만 들쳐 봐도 벌써 그 책 한 권의 뜻이 다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암 스님도, 경허

해골바가지에다가 절을 하시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못마땅했죠. 하나 부처님께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느냐, 저 뼈다귀는 바로 과거면서도 미래, 미래면서도 현실에,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도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형제도 될 수도 있느냐. 그러니 저 뼈다귀가 누구 뼈다귀인 줄 아느냐, 우리 부모의 뼈다귀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 하고선 얘기를 하니가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말 이렇게 심오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한 줄을, 부모가 틀이 아니고 자식이 틀이 아니고 형제가 틀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웃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 미생물에서부터 거처를 때에 무척이나 쫓기고 쫓고 이리다가 진화해서 사람이 처음 나니까, 모두 보니까 나무, 풀, 뭐 전부 정원이라고 합니다. 다 생겼는데 자기는 맨 나중에 나와 보니까 상대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불도 알아지고 망치도 알아지고 뭐 칼도 알아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알아졌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분이 출현하셔서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도리, 충성, 효도 등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거를 전부 가르쳐주셨단 말입니다. 단군께서 전부서 팔십일 자를 남기고 가신 후에 부처님이 나서서 또 팔십중후(八十種好)를 가르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님이 하나도 없고 우리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잘못되고, 아주 저건 못쓰는 사람이야 이럴 때도 '아, 저것이 물랐을 때의 내 모습, 수억겁을 거처오면서 나는 저거보다도 더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자비스런 마음으로써 '아, 저것이 모를 때 내 모습이지.'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미울 게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머무르지 않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면, 발견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공부 하겠다고 발심들을 해서 곧 아르헨티나에도 지원이 생길 겁니다. 공부할 집을 보러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니까?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거를 한 번 둘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먼 거리라 지원에서 지원으로 오고 가는 데만도 하루씩 걸리니 제대로 볼 일 보고 다니려면 몇달 며칠이 걸려야 될 거를, 바쁘니까 그냥 밟아도 차를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쳐도 한 달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처음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이치고 아만들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지 보고 싶어서 그 참 눈에 아른거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른거린다고 해서 착을 두지 말고, 아른거리면 '아, 보고 싶구나.' 그리고 '틀이 아닌데.' 하고 '틀이 아닌데.'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자기로 돌립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오래 나갔다 오면요, 틀 아니면서, 땅도 한방이고 도량도 한도량이면서도 너 나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보고 싶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오면서 비행회장을 많이 배 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마음에도가 그저 모르든 알든 모든 걸 말하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거기다가 죽으나 사나 말고 가는 사람이야만이지 그 회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생동생동한 사람을 회장을 시키면 그 회원들이 다 생동생동해질 테니까.

그러니깐 그게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행회장을 많이 배출해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볼 때, 왜 그렇게 다양하게 늘었느냐, 그리고 그 신도들이 전부 벌어먹고 살게 돼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이렇게 맡겨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삼십 명이든 사십 명이든 좋습니까마는, 그 중에 이 도리를 풀어서 같구하는 사람들을 자꾸 뽑고 또 단위를 넓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번째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법회를 따로 만들어서 첫째 필요일만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데 합쳐서 문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쳐서 거기서도 비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나누어서 공부해가면, 식구가 적다면 서로 토론하기도 쉽고 아주 좋죠, 다양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도와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비행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아주 가만해서 학자들도 못 내는 사람들은 학자들도 우리가 거꾸

못난 것도 한 찰나 잘난 것도 한 찰나니

모든 것 목살하고 마음도리 배우는 데 전념해야

망상에 걸리지 말고 그대로 참선하라

33면에서 계속

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캄캄을 와서 한자리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질 것을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 범우님들 모인 장소에 전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같이 모이게끔 하시고요.

청년들도 첫째 일요일에 모임 때, 여기서라도 같이 한쪽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미루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청소년 애들도 이렇게 같이 모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싹을 내서 실

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이게 '아늑다라삼삼삼 보리'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이틀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심경에도 속해 있고 금강경에도 속해 있고 화엄경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실상을 찾고 발견하려면 나를 먼저, 미래 세계의 그 법계의 법을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 이시고) 전답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전화도 벨 꺼워 놓으면 사람이 없을 때 전화가 와도 다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팩스도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상태 쪽에 전달돼요. 팩스뿐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는 지금 전파를 위성을 통해서 쓴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한테 간섭도 안 받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귀찮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네? 억울하면 공부하세요. 모두 못 살고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거 억울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뭐 이렇게 저렇고 하지 마시고요. 못난 것도 한참하고 잘난 것도 한참나니까 그런 걸 다 그저 묵살시키고 이 도리를 배우는 데 전념을 하세요. 여기 앉아서 제신 분들은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캄캄 왔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주장자에 사탕같이 썩 그거를 하니까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다 들으면 들어가야 만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 쓰고 증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애를 쓰지도 말고 애를 안 쓰지도 말고, 그냥 생활하는 데서 여유하게 돼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내 한마음, 이 한마음 의식, 한마음으로 주인공,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주장자 이것이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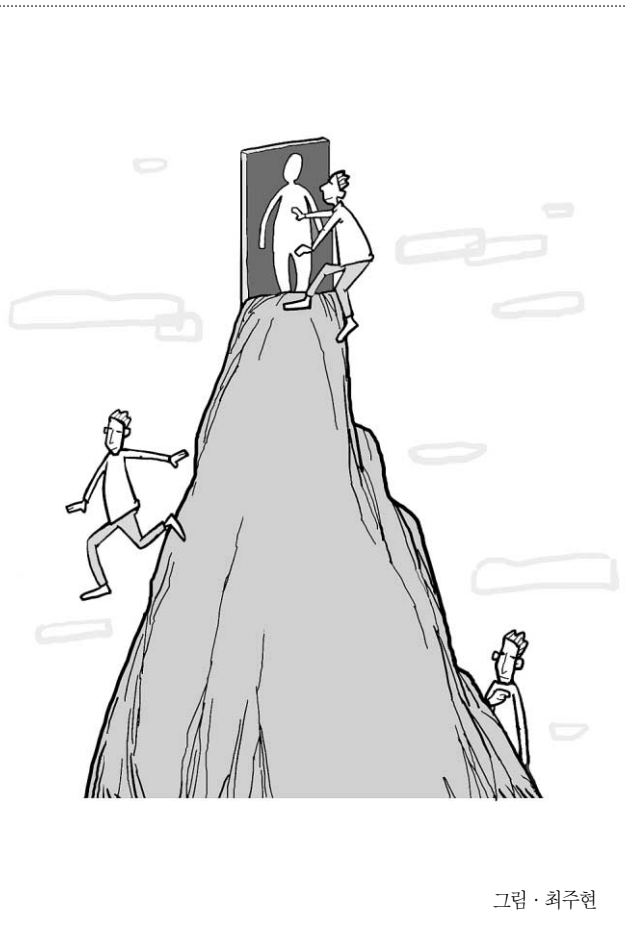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뭐 걱정이야, 보배가 한탄해 있는데.' 이력하고선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과 나무를 심어 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따가 요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아래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겁내고 살아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죽는 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은 꼭 해야 되니까요. 뭘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 버려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내가...' 이러니깐 그냥 두렵고 모 두가 그렇지, 내가 한다는 게 불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감쪽한 그름밭에 글썽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춘천 골짜기를 내려가는 쪽으로 거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어차피 죽으

려고 그랬는데 그깟 놈의 거 뭐 그게 두려워? 다와라. 뭐가 있다면 다 와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깐 글썽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도 묵신이 있는 겁니다. 아, 인사를 꼭 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벗이 돼서 좋아서 말입니다. 나도 그 밑에 앉아서 혼자 싱그레 웃고 혼자 중얼거렸으니, 누가 봤더라면 '저 사람 미쳤군.'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산중에 올라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산비둘기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능생이 울음소리, 새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그리고 그냥 싱긋이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친구들이고 벗이었어요. 도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의 세계에 그 지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배인이죠. 그리고 지배인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는 하나 다라고 하는 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용어를 붙여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이거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는 (합장하시며) 이따가 죽든 내일 죽든 그런 상관없으니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하는 대로요, 죽든 살든, 그거를 배우세요. 내가 죽든 살든 이따가 죽든 이따가 없더라도 그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면 가루가 되더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루도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일하시면서

나 항상 평상시가 그냥 참선이며 마음 편안하고 넉넉하면 좌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대중 속에서 "스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씀 합) 자기도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박수) 어릴 땐 날더러 건강하라고 하고 가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죠. 그럴 땐 "에이, 너나 건강하게 좀 가져가거라." 그러면서요 "에이, 네가 건강하게 살면 내가 편안할 텐데 오히려 날더러 그러고 가니 저거를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날더러 또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간다구요. 허허하. (대중 웃음) 이게 뭐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립니까?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기가 막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절을 하죠. 그러면 나한테 절하는 건 줄 알아요. 배이삭도 익어야 자기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글썽 날더러 하는 건 줄 알죠. 내가 오히려 대신해서 그저 보이는 걸로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준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죠. 나는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 절 받는 게 뭐 그렇게 좋아서, 절 받는 게 내가 받는 게 아니면서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이나 하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 앉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거 다리가 아파서 앉았겠습니까?

전에는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이랬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굴었죠. 지금은 오히려 지원이 많이 생겨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데, 가면 될 합니까? 거기 가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오시나 두 분이 오시나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돌이 아닌 까닭에 그 자리를 비워 놔두면, 급해서 애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없으면 어쩌나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겁니다. 요새는 하두하루 그렇게 하다가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나와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건강하십시오. (합장하심)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3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와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나』를 갖다가 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교재로 해서 주되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에도 그렇고 거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를 나서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이 미래의 세계에 우주의 그 법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있다' 이런 아집을 버리고, 그대로 해나간다면 우주정거장도 허가를 내서 서울 거 아납니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지꾸 무너지거든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부처님이, 보살이 법을 전달해서 그렇게 되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부진하면 '아, 내가 좀더 공부를 해야겠어.' 하면 벌써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못났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잠시 대통령 돼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귀찮을 텐데. 안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돼보기도 하고 미래 세계의 지배인도 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일 생활아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면,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걸썩법

풍뎡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딱딱하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딱히는 원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아제,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프레이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가 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2개월 과정 ※ 수시 접수
▶장 의: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김철우 박사
▶장 소: 본 연구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부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방치 산후비량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흡수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다디 통증을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홍(경남 신창)
주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률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일어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기념포시 약편 -

- ▶ 1941년 2월 5일 경매 상주 출생
- ▶ 1963년 홍성사(해마) 대학교 약학과 졸업
- ▶ 1967년 홍성사(해마) 대학교 약학과 졸업
- ▶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1급, 2급, 3급, 4급
- ▶ 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 1급, 2급, 3급, 4급
- ▶ 1973년 2월 1일 한의사(해마) 1급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